

인문학으로 접근한 노인 소통 집단상담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행복시소> 전자책 출판



전자책 행복시소 표지

어르신들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로, 여전히 '돌봄의 대상'이다. 대부분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쉽게 우울증에 걸리고, 경제적 빈곤 등의 이유로 자살률도 높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고통은 다른 계층에 비해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통의 문제는 어르신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센터장 최유)가 인문학적으로 접근한 노인 의사소통 집단상담 프로그램 내용을 전자책 <행복시소>로 출판해 눈길을 끈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는 "그간의 상담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 많은 부분이 의사소통과 연관되어 있고, 이것이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의 대인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을 실제

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개인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해마다 의사소통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행복시소>는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가 2013년 6월~8월 두 달 동안 진행해 어르신들에게 호평 받았던 의사소통 집단 프로그램 '행복하고 시원한 의사소통(행복시소)'의 내용을 전자책으로 엮었다.

'행복시소'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하고 재구조화하고자 기획되었다.

인문학과 사회복지의 개인적 자아실현과 공동체의 행복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상을 그려 보려는 공통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인문학과 복지는 상호보완적이면서도, 상호지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는 "사회복지의 실천이란 결국 인간에 대한 서비스의 총체이며 인간과 세계에 대한 다양한 인문학적 성찰을 기반으로 할 때 더욱 풍부한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소통이란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함께 지켜야 할 윤리와 실천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문학적으로 접근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전자책 <행복시소>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8장으로 구성된 책에서는 이론과 집단상담의 실제 내용, 평가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이 책의 본문에 해당되는 4장은 총 8회에 걸친 '행복시소'의 회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는 의사소통 집단 프로그램 '행복하고 시원한 의사소통(행복시소)'을 진행해 호평 받았다. 이를 토대로 전자책 <행복시소>를 발간했다.

소통 부재로 겪는 노년의 고통 8회기로 구성된 집단상담 담요 공감의 사회 만들어고자 기획

기법 진행 내용을 상세히 서술했다. 각 회기별 키워드를 인문학적 사유방식 중 특히 철학적 인식론과 관련지어 설명했으며, 진행자의 발언, 어르신들의 스토리텔링 등을 있는 그대로 기술해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향후 집단상담 메뉴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4장에서는 마주침, 경청하기, 반영하기, 공감하기 등을 키워드로 한다. '경청하기'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 이론 및 타인의 타율한 통찰력을 통해,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의 인식론적 의미를 소개했다. "반영하기"에서는 라강

과 데카르트를 통해 근대와 탈근대적 사유에서 주체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반영적 사고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소개했다. '공감하기'는 레비나스와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고찰해 공감이 의사소통의 문제일뿐 아니라 동시에 윤리의 문제임을 설명한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장 최유 스님은 "참여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의사소통 집단프로그램 '행복시소'를 함께 공유하면서 노년기 가족과 지인 혹은 사회로부터 겪는 의사소통은 물론 소통과 공감이라는 우리 사회의 화두를 열어 가는 데 의미 있는 노력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자책 <행복시소>는 교보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디북스,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등 인터넷 서점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정가는 6,000원이다.

정혜숙 기자 lwjhs@hyunbul.com

안전보건공단 중립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 사업에 지원

중립종합사회복지관은 7월 17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지사장 김영호)와 함께 지역 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과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전달받은 후원금은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며, 쌀 80kg는 지역 내 저소득 노인을 위한 양질의 식생활 지원으로 쓰일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 김영호 지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는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중립종합사회복지관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으로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및 후원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건강



안전보건공단의 후원금과 물품식 전달

성장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 6회의 안전교육 및 정기적인 학습지원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정혜숙 기자

내서복지관 '건강한 복날 보내기'

7월 23일 어르신 300여 명에 삼계탕·다과 제공

내서종합사회복지관은 7월 23일 복지관 무료급식소에서 '건강한 복날 보내기'를 실시했다. 마산 서타리클럽 회원들의 후원과 자원봉사로 이루어진 이날 행사에는 저소득층 어르신 300여 명이 참여했다.

초복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행사에 대해 내서종합복지관은 "복날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한방삼계탕과 다과를 마련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에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영양이 있는 고단백 식사를 제공, 어르신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지역 단체를 비롯해 자원봉사자와 연계해 소외계층에 관심을 유도하여 지역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며 취지



어르신들의 삼계탕 식사 장면

를 전했다. 후원단체의 후원금과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내서복지관 '건강한 복날 보내기'는 8월 12일 말복에도 이어진다.

정혜숙 기자

"시원한 팔빙수 먹으며 여름 더위 식혀요"

동행, 지역아동센터에 팔빙수 및 기기 지원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궁 스님을 비롯한 직원들은 7월 22일 해명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직접 빙수를 만들어 주는 시간을 보냈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7월 22일 서울 금천구 해명지역아동센터(센터장 이무성)를 방문해 빙수기를 지원하고, 아동들과 직접 빙수를 만들어 먹는 시간을 가졌다.

동행의 '하얀 여름, 쿨한 나눔' 모금 캠페인은 방과 후 대부분의 시간을 지역아동센터 또는 방과후 교실에서 보내는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더위를 식혀주고, 건강한 간식을 제공해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팔빙수 세트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빙수기계뿐만 아니라 기관의 운영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동들이 이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팔빙수의 재료도 지원했다.

이날 방문에는 약 20명의 초등학생들과 아름다운동행 직원들이 함께 빙수를 만들

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학생들이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궁 스님에게 빙수를 직접 만들어서 전해주며 훈훈함을 더했다.

해명지역아동센터 이무성 센터장은 아동들이 맛있게 먹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흐뭇하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 센터장은 "아이들에게 빙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아름다운동행에서 지원을 해주니 감사할 따름이다. 운영이 어려운 지역아동센터에 이번 캠페인은 큰 도움이 되었다"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채희준(서울백산초 4학년)군은 "팔빙수를 직접 만들어 먹으니 너무 행복하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정혜숙 기자

보인고, 마천 복지관 어르신 '말벗 봉사'

7월 18일 떡·양말 등 후원물품 전달도

보인고(교장 김정현) 학생들이 7월 18일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지역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안마와 말벗서비스 봉사활동을 진행해 눈길을 끈다.

참가 학생들은 어르신들에게 안마와 말벗을 해드리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와함께 정성껏 준비한 선물떡, 양말, 라면 등의 후원물품을 학교를 대표해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김준식(가명)은 "이렇게 학생들이 찾아와 이야기도 나누고 안마도 받으니 너무 행복하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 보인고는 지역 내 저소득층어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학생들

신들에게 물품지원과 안마·말벗서비스 등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My friend MF30-12T 14 박스팬 선풍기

국내 유일 14인치 마이프렌드 정품 선풍기

마이프렌드 정품 32,000원



상쾌하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실어 공간으로 Electric Fan 14인치 리모컨식 선풍기 MF-1414SR

무료배송, 정품확인 완료 73,000원



마이프렌드 정품 MF-3000TS

강력한 터보팬동작, 무료배송 84,000원

선풍기 무료배송 당일배송 및 안전배송

마이프렌드 정품인증 완료

박스팬 선풍기	32,000원
스탠드 선풍기(리모컨포함)	73,000원
터보팬 선풍기	84,000원

입금계좌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문의전화 02)879-2007

교직원 양성 전문교육

제 90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관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5년 8월 17일

◆개강일시 : 2015년 8월 17일(월요일) 개강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청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